

## 과중한 학업요구와 학업소진과의 관계: 통제감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민애 이 상 민 신 효 정 박 양 민 이 자 영†

고려대학교 부속중학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학업소진 모형 중 요구-통제 모형을 검증하고, 학업요구와 학업소진의 관계 그리고 두 변인 사이에서 통제감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경기 지역 중학생 490명을 대상으로 학업과다, 학업소진, 통제감을 측정 한 후 학업과다와 학업소진 사이에서 통제감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제감은 학업과다와 학업소진 사이에서 중재변인이 아닌 억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감은 학업과다와 학업소진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소진을 예방 및 개입 하는데 있어서 통제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요구통제모형, 학업소진, 학업과다, 통제감

\* 본 연구는 김민애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BK21 교육학국제사업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자영,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E-mail : hycounselor@hanmail.net

## 서론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감의 혼란, 갈등, 고민 등으로 복잡한 질풍노도의 시기이며, 어떤 생의 단계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와 어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 공부에 대한 부담감, 경쟁적인 학교분위기, 부모와 교사와의 대화 부족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장영애, 손영미, 2006; 조학래, 1997; 한상철, 1997).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중 가장 많은 스트레스는 학업 스트레스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계현 등, 2000). 청소년 보호위원회(2003)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 중 78.4%의 학생이, 중학생은 76.8%의 학생이 가장 짜증이 나는 스트레스 상황을 학교 성적이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계(2007) 자료에서도 56.5%의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를 ‘공부’라고 하였다. 이 같은 통계 수치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는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울, 불안, 약물복용, 공격성, 문제행동, 학교생활 부적응, 소진 등 다양한 부적응 양상을 야기하고 있다(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 최미경, 조용래, 2005; 최승혜, 2008).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 증상들이 심해질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문경숙, 2006; 임숙빈, 정철순, 2002). 김기환과 전명희(2000)는 1994년부터 1999년 까지 국내 4대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에 실린 청소년 자살 기사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자살 이유의 약 35%가 성적 비

관이나 입시에 대한 부담감, 학교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능성적결과를 확인한 후 자살한 경우는 전체 자살촉발사건 92건 중에서 10.6%를 차지하는 등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히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학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부적응 현상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그 동안 많은 국내학자들에게서 간과되어왔던 학업소진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진(Burnout)이란 ‘다 타다’, ‘다 태워 버리다’, ‘정력을 다 써버리다’를 의미하며,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 수행하는 기능이 지쳐버린 상태를 말한다(Maslach & Schaufeli, 1993). 소진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시킨 대표적인 학자인 Maslach와 Jackson(1981)은 소진을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즉 소진은 정신적으로 과부하 됨을 느끼고 자신의 일로 인해 지쳤다는 느낌을 갖는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의 결여(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의 세 가지를 주된 증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소진 현상이 심해지면, 불평, 무단결근, 잦은 질병, 우울증, 약이나 술 등에 의존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Harris, 1984; Lattanzi, 1981; Maslach & Pines, 1977). 이러한 소진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교사, 간호사 등의 인간 서비스 계통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Cedoline, 1982; McConnell, 1982; Skovholt, 2001), 최근에는 경영자(Lee & Ashforth, 1993), 군인(Leiter, Clark, & Durup, 1994), 기업가(Gryskiewicz & Buttner, 1992) 등의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소진연구가 이

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소진에 관한 연구도 주목을 받고 있다 (Chang, Rand, & Strunk, 2000; Meier & Schmeck, 1985; Pines, Aronson & Kafry, 1981; Yang, 2004; Yang & Cheng, 2005).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은 지속적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학업요구로 인해 나타나는 학생의 정서적 탈진,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그리고 무능감 등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징후를 의미한다(Schaufeli et al., 2002). 학생은 고용이 되거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는 않지만 심리적 관점에서 학업은 그들의 “직무”로서 간주된다. 즉 학생들은 구조화되고, 의무화된 활동들, 예를 들어, 수업에 참석하고, 과제를 완수하고 시험에 통과하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업은 하나의 직무로 볼 수 있다(Schaufeli & Taris, 2005). 학업소진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경험할 때 그들은 지친다고 느끼고, 학업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며, 학생으로서의 무능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McCarthy, Pretty, & Catano, 1990; Meier & Schmeck, 1985). 이러한 학생들의 학업소진현상은 인간서비스 종사자들의 소진양상과 유사하게, 수업에 대한 동기 저하, 장기 결석, 학업 중단 등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다(Meier & Schmeck, 1985; Ramist, 198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심각한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양상이 지속될 경우 단순히 스트레스 수준을 뛰어 넘어 학업소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 이를 예방 및 개입하기 위해서는 학업소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소진을 설명하는 모형 중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Karasek의 요구-통제모형(DCM; Demand-Control Model)을 들 수 있다. 직무 요구는 작업 환경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과도한 업무를 완성해야 하는 것과 시간의 압박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 통제는 보통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의사결정의 기회, 직무 기술을 말한다(Pomaki & Anagnostopoulou, 2003; Salanova, Peir, & Schaufeli, 2002). Karasek의 요구-통제모형의 이론적 개념을 기초로 하여 학생 소진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학생이 과도한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직무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직무 통제는 학업에 대한 학업분량이나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통제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요구-통제 모형은 두 가지 가설을 가정하는데, 하나는 상호작용가정으로 직무요구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통제감(control)이 중재작용(moderating effect)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효과 가정으로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통제감수준이 낮을수록 일에 대한 동기가 사라지고, 긴장과 스트레스, 우울, 소진 등의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Evangelia,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Peeters & Rutte, 2005). 상호작용을 가정하고 있는 전자의 모형에서는 요구와 통제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4가지 상황, 즉 높은 스트레스 상황, 낮은 스트레스 상황, 적극적인 상황, 소극적인 상황의 직무로 구분된다. 직무요구가 낮은 경우엔 통제감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진이 일어나지 않으나, 직무요구가 높은 경우엔 통제감의 유무에 따라 소진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가정이다. 즉, 요구가 높으면서 통제감이 낮을 때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의 직무로 구분되어지며, 이러한 경우 소진이 유발될 수 있으며,

직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량희, 유태용, 2007; 박상언, 한수정, 2006; 이강훈, 2008; Karasek, 1979; Paterniti, Niedhammer, Lang, & Consoil, 2002; Schmitz, Neumann, & Oppermann, 2000). 많은 학자들이 요구-통제 모형의 중재효과(상호작용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연구에서 중재효과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ehr, Glsaer, Canali, & Wallwey, 2001; Totterdell, Wood, & Wall, 2006; Van Der Doef & Maes, 1999). 후자인 주효과 가정은 직무 요구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아지거나 직무만족도가 떨어지며, 통제감 역시 낮을수록 소진이 높아지거나 직무만족도가 저하된다는 것이다(Evangelia et al, 2001; Peeters & Rutte, 2005). 주효과가 나타난 연구에서는 직무요구와 통제감 간에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과, 각각의 요인이 소진이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만 제시되었다.

요구-통제 모형의 두 가지 가설(상호작용 vs. 주효과) 모두 직무요구와 통제감 변인간의 독립성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요구와 통제감 간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연구들이 빈번히 제시되고 있다(박량희, 2007; Beehr et al., 2001).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직무요구와 통제감이 중재효과 외에 다른 관계(예: 매개 혹은 억제효과)에 대한 연구(Medin, Ekberg, Nordlund, & Eklund, 2008; Stoetzer, Ahlberg, Bergman, Hallsten, & Lundberg, 2009)들이 진행되어 왔고,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변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직무요구를 통제감으로 나눈 비율의 값과 소진간의 관계를 측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통제감이라는 것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율권, 재량권 등

을 의미하는 걸 고려한다면,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통제감 역시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무요구와 소진 사이에서 통제감이 매개 혹은 억제효과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몇 연구자들(Beehr et al., 2001; Karasek, 1989)의 경우 요구-통제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중재효과가 아니라 요구와 통제라는 두 개의 다른 요인이 서로 결합하여 소진이나 직무만족도와 같은 결과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직무요구와 통제감의 중재효과나 주효과 모형 외에 소진을 설명하는 다른 모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연구자들(Calnan, Wadsworth, May, Smith, & Wainwright, 2004; Marmot, Siegrist, Theorell, & Marmot, 1999) 역시 직무의 특성이나 종류에 따라 요구-통제 모형이 다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의 경우 이를 새롭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량이 과다하게 주어지는 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통제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대학입시에 대한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특목고 입시 열풍 등으로 인하여, 중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 학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강한 부담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중학생들은 초등학생에 비해 유능감이 급격히 떨어지고, 초, 중, 고등학생 중 통제감과 같은 자율적 동기와 내재 동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김아영, 2002; 김아영, 2008; 현주, 차정은, 김태은, 2006), 학업적 개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으므로 학업소진 역시 이들에 대한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량이 과다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소진을 예방

및 개입하기 위해 학업과다와 학업소진 사이에서 통제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학업에 대한 요구가 과도할 때 학생 스스로 학업량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제감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소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업소진에 대한 예방 및 개입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9년 5월에 서울·경기 지역의 중학생 총 4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236명(48.1%)이었으며, 여학생은 254명(51.9%)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설문에 조금 더 많이 참가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에 따른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보고한 성적을 살펴보면, 1-10등 152명(31.0%), 11-20등 154명(31.4%) 그리고 20등 이하가 184명(37.6%)으로 나타나 성적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 도구

#### 학업소진척도

학업소진척도는 이영복 등(2009)이 Schaufeli와 그의 동료들(2002)이 개발한 학업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를 우리나라의 중, 고등학생들에게 맞게 개발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탈진(exhaustion), 냉담(cynicism) 그리고 효능감(efficacy)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 스페인 등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되었다(Gan et al., 2007; Schaufeli et al., 2002). 그러나 이 척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영복 등(2009)은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에 맞게 개발 및 타당화 하였다. 그 결과 탈진, 냉담, 무능력 외에 반감과 불안이라는 요인이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이 보이는 학업소진의 특징임을 밝혀냈다. 이영복 등(2009)에서 나타난 학업소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2였으며,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탈진이 .85, 무능력 .89, 반감 .90, 냉담 .83, 그리고 불안이 .81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안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 요인을 포함했을 때보다 불안 요인을 포

표 1. 연구 참여자의 성별 및 학년 분포

	남	여	전체
중1	79(16.1)	88(18.1)	167(34.2)
중2	77(15.7)	83(16.9)	160(32.6)
중3	80(16.3)	83(16.9)	163(33.2)
전체	236(48.1)	254(51.9)	490(100.0)

표 2. 학업소진 모형 검증

적합도 지수	$\chi^2$	df	p	TLI	CFI	RMSEA
5요인 모형 (이영복 등, 2009)	2119.999	265	.000	.837	.856	.089
5요인 모형(이영복 등, 2009) (수정 후: MI 10개 연결)	1343.989	255	.000	.901	.916	.069
4요인 모형 (현재 연구)	699.388	164	.000	.896	.910	.082
4요인 모형 (현재 연구) (수정 후: MI 1개 연결)	603.137	163	.000	.914	.926	.074

합하지 않았을 때 모형의 적합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영복 등(2009)이 수정지수를 10개 연결하여 모형의 좋은 적합도를 찾은 반면, 불안을 제외하였을 때는 1개만을 연결하여도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불안 척도의 경우 탈진과는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r=.54, p<.01$ ), 다른 하위척도와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무능감( $r=.39, p<.01$ ), 반감( $r=.40, p<.01$ ), 냉담( $r=.18, p<.01$ )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영복 등(2009)이 소진의 하위척도로 언급한 불안의 경우 학업소진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학업소진의 하위척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을 제외한 4개의 하위요인 즉 탈진, 무능력, 반감, 냉담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학업소진척도의 총 문항 수는 20문항으로 하위 요인(탈진, 냉담, 무능감, 반감)에 각각 5개 문항씩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2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탈진 .85, 냉담 .84, 무능감 .91 그리고 반감 .83이었다.

### 학업과다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영복 등(2009)이 사용한 학업과다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과다척도는 Jayaratne와 Chess(1983)가 직장인의 직무환경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를 윤부성(2000)이 번안한 직무요구 척도 중 업무과다 요인을 한국의 중, 고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나는 해야 할 공부가 아주 많다’ 등 과다한 학업 량에 관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전혀 안 그렇다’(1) ~ ‘매우 그렇다’(5)에 응답하도록 만든 5점 Likert 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5였다.

### 통제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영복 등(2009)이 사용한 통제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통제감이란 공부를 할 때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영복 등(2009)이 사용한 통제감 척도는 Karasek 등(1998)이 개발한 직무 통제력(통제감)에 대한 문항을 한국의 중, 고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공부하는 양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공부하는 방식

(예: 학원수강, 과외 등)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전혀 안 그렇다'(1) ~ '매우 그렇다'(5)에 응답하도록 만든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9였다.

### 절차

서울, 경기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실시한 후, SPSS 통계 프로그램 15.0 (Windows Version 15.0)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업소진과 학업과다 그리고 통제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 간 단순상관분석(zero order 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통제감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통제감을 통제변인으로 넣고 학업과다와 학업소진간의 부분상관(partial correlation)분석을 한 후 학업과다와 통제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중재모형에 대한 경합모형으로 세 변인간의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매개 및 억제 모형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적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집단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본 연구에서는 통제감이 학업과다와 학업소진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학업과다, 통제감 그리고 학업소진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단순상관계수( $r$ )를 구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과다는 통제감( $r=.20, p<.01$ )과 학업소진( $r=.10, p<.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통제감은 학업소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48, p<.01$ ). 이는 학업이 과다하다고 지각될수록 학업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학업소진 또한 많이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학업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고 느낄수록 학업소진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Frazier 등(2004)의 연구에 근거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학업과다와 통제감의 중재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학업과다 변인과 통제감 변인의 상호작용 변인(학업과다  $\times$  통제감)을 예언변인으로 두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업과다와 통제감의 상호작용 변인은 학업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3, \Delta F=.60, \Delta R^2=.01, p=.44$ ). 즉 통제감이 학업과다와 학업소진 사이에서 중재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과다와 학업소진 사이에서 통제감이 또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중재모형에 대한 경합모형으로 매개 및 억제모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학업과다와 통제감의 상관이  $.20(p<.01)$ 으로 나타나 학업과다와 통제감의 독립적인 효과를 알아보았다. 따라서 통제감을 통제한 후 학업과다와 학업소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부분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즉 학업과다와 통제감의 상호상

표 3. 학업과다, 통제감, 학업소진 간의 단순 상관 계수(*r*)

	학업과다	통제감	학업소진
학업과다	-		
통제감	.20**	-	
학업소진	.10**	-.48**	-

주. \*\*  $p < .01$

표 4. 학업과다, 통제감, 학업소진 간의 부분상관계수(*r*)

	학업과다
학업과다	-
학업소진	.22**

주. \*\*  $p < .01$

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학업과다와 학업소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통제감을 통제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학업과다와 학업소진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22, p < .01$ ).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과다와 학업소진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순상관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단순상관분석에서 학업과다와 학업소진간의 상관관계가 .10에 불과하던 것이 통제감을 통제한 후에는 .2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통제감이 학업과다와 학업소진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통제감이 학업과다와 학업소진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학업과다와 통제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경로분석을 통해 통제감이 매개 또는 억제 변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각 변인별 경로계수는 <표 5>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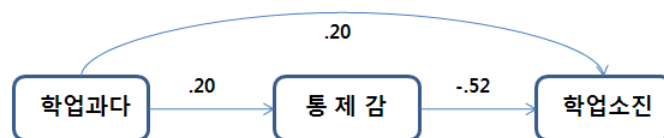


그림 1. 학업과다, 통제감, 학업소진 경로분석결과

표 5.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P
학업과다 → 통제감	.29	.20	.07	4.46	.000
통제감 → 학업소진	-1.08	-.52	.08	-13.01	.000
학업과다 → 학업소진	.61	.20	.12	5.01	.000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각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1$ ). 그러나 이 경우에서처럼 학업과다가 통제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20)와 통제감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직접 효과(-.52)의 곱이 0보다 작을 때 이는 매개효과(mediating effects)가 아닌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s)라고 한다(Cheung & Lau, 2008). 이러한 억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표준오차를 구한 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업과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간접효과(비표준화 계수)}}{\text{표준오차(SE)}} = \frac{-.313}{.024} = -13.042$$

그리고 다중집단구조방정식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결과가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성적을 상, 중, 하 집단에 따라 학업과다, 통제감 그리고 학업소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적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업과다가 통제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통제감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학업과다와 학업소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학업소진모형 중 요구통제모형에 기반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과다와 학업소진간의 관계에서 통제감이 억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소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업소진 예방을 위한 상담 및 학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을 지원 및 지도하는 데 중요한 함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업소진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요구-통제 모형의 적용을 확인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기존에 소진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형인 요구-통제모형(DCM)은 직무요구가 높고, 직무통제가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 등 심리적 신체적 긴장과 소진이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Ostry et al., 2003; Van der Doef & Maes, 1999). 본 연구의 결과 학업과다는 통제감과 학업소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통제감  $r = .20, p < .01$ ; 학업소진  $r = .10, p < .01$ ), 통제감은 학업소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48, p < .01$ ). 즉, 통제감이 적을수록 학업소진은 많이 일어나며 통제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학업소진이 적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요구-통제 모형에서 직무에 대한 요구가 많을수록 그리고 개인이 통제를 하지 못할수록 소진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요구-통제모형(DCM) 이론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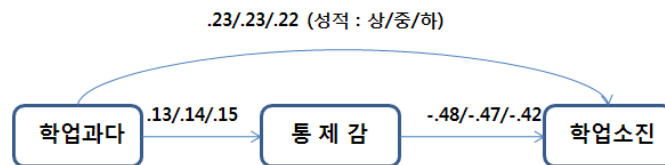


그림 2. 학업과다, 통제감, 학업소진간 다중집단분석결과

치하는 것이다(Beehr et al., 2001; Kristensen, 1999; Schnall, Landsbergis, & Baker, 1994; Van der Doef & Maes, 1999). 따라서 기존에 일반 직장인(De Jonge et al., 2000; Lange, Taris, Kompier, Houtman, & Bongers, 2002), 경찰공무원(이강훈, 2008), 교사(Peeters & Rutte, 2005), 간호사나 건강관리전문가(박상언, 한수정, 2006; Westman & Bakker, 2008) 등 성인의 소진을 설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던 요구-통제모형(DCM)이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소진도 역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통제감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이 과다하고 통제감이 낮을 때 소진이 일어나고, 학업이 과다하지만, 통제감이 낮은 상황에서는 만족감이 높으며, 학업이 과다하고 통제감이 높을 경우 개인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중재모형을 검증해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통제감은 중재변인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학업이 과다하고 통제감이 높을 경우 개인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기존의 중재모형과는 달리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통제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개인의 성장보다는 소진을 어느 정도 야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재모형이 아닌 매개 모형을 통해 학업소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런 후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업과다가 통제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20)와 통제감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직접효과(-.52)의 곱이 0보다 작은 것을 통해 통제감이 학업과다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억제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무요구와 소진 사이에서 통제감이 중재변인으로 기능한다는 기존 연구(박상언, 김주엽, 김민용, 2005; 이강훈, 2008; Cummins, 1988; Kobassa et al., 1982)와는 다른 결과로 요구-통제 모형에서 중재변인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상이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연구(Totterdell et al., 2006; Van Der Doef & Maes, 1999)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요구(학업과다)가 과다할수록 직무에 대한 영(학업량)이나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또한 함께 증가함으로써 소진을 줄이는 억제효과를 보이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기존 연구가 단지 중재효과만을 밝혀낸 것에서 벗어나 요구와 통제감의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 및 상담자가 학업소진을 예방 및 개입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학업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은 주로 공부 방법, 집중력, 성취도 등에 초점을 두었다(김만권, 이기학, 2003;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심리자문연구소, 2007).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통제감은 학업과다와 학업소진 간에 억제변인으로서 기능함으로써 학업과다와 학업소진의 관계를 약화시켜주고 있다. 그 결과 통제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학업과다가 학업소진을 야기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통제감이 자신의 학업에 대한 결정권(자율권)이라는 측면에서 학습 동기나 학업 성취도 또한 증가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 학습에 대한 통제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업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학업소진을 예방 및 개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교사, 간호사 등 인간 서비스 계통의 직업군이나 군인, 기업가 등 다양한 직업 분야의 사람들의 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이 있어 왔지만(Gryskiewicz & Buttner, 1992; Lee & Ashforth, 1993; Leiter, Clark, & Durup, 1994), 학업소진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국내외적으로 극히 미비한 상태이다(이영복 등, 2009). 특히 몇몇 연구자들은 요구-통제 모형의 경우, 직무의 특성이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Calnan, et al., 2004; De Jonge et al., 2000; Marmot, Siegrist, & Theorell,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과 관련하여 소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학업이라는 직무 특성에 따른 요구-통제모형을 검증함으로써 학업소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학업이 과다할수록 통제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억제효과를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효과는 학업과다와 통제감 척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다. 즉 학업과다라는 척도 내에 통제감의 특성이 반영되었다면 결과가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억제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업소진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요구-통제모형(DCM)만을 검증 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소진을 설명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모형인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ERIM; Effort-Reward Imbalance Model)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소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과다와 학업소진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통제감만을 고려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 통제감의 다양한 변인으로 사회적지지, 외향성 등이 소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astburg, Williamson, Gorsuch., & Ridley, 1994; Huebner & Mills, 1994; Jacob & Dodd 2003; Mills & Huebner, 1998).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통제감 외에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 부모의 학업기대, 사회적 지지, 성격 등 개인적인 변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양한 대상의 소진연구 중에서 학업소진에 초점을 두고 요구통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학업과다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통제감이 억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학업이 과다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통제감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업소진을 예방 및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학교나 상담 현장에서 학업소진 학생을 많이 접하는 교사 및 상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김계현 외 (2000).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김기환, 전명희 (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따른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127-152.  
 김만권, 이기학 (2003). 자기조절학습전략 프로그램이 학업성취와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5(3), 491-594.
- 김아영 (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1), 157-184.
- 김아영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14(1), 111-134.
- 문경숙 (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 143-157.
- 박랑희 (2007). 직무 요구와 직무 통제가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랑희, 유태용 (2007). 개인의 성격, 직무 요구, 직무 통제가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0(1), 1-20.
- 박상언, 김주엽, 김민용 (2005). 소진에 대한 직무요구, 직무통제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효과. *인사관리연구*, 29(2), 25-57.
- 박상언, 한수정 (2006). 직무요구-통제 모형에 의한 간호사의 소진(Burnout)에 관한 연구. *병원경영학회지*, 11(2), 32-60.
- 이강훈 (2008). 경찰공무원의 탈진에 관한 연구: 직무요구-통제-지지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10(1), 185-206.
- 윤부성 (2000). 아내학대 관련기관 상담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복 (2009). 청소년의 학업소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 학업소진척도 개발. *한국교육학연구*, 15(3), 59-78.
- 임숙빈, 정철순 (2002). 자살을 생각한 고등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스트레스원과 대응행위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2(2), 254-264.
- 장영애, 손영미 (2006).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4), 137-149.
- 조학래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 사회복지 연구*, 4, 186-210.
-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3). *청소년자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 최미경, 조용래 (2005). 생활스트레스와 지각된 불안통제감 및 대처양식이 대학생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81-298.
- 최승혜 (2008).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원과 증상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7). *2007 청소년 통계*.
-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심리자문연구소 (2007). *한국 신나는 학습 클리닉 전문가양성교육 (4단계): 프로그램 사례보고서*.
-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1997). *청소년심리학*. 서울: 양서원.
- 현주, 차정은, 김태은 (2006). 학교 급별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2), 443-465.
- Beehr, T. A., Glaser, K. M., Canali, K. G., & Wallwey, D. A. (2001). Back to basics: Re-examination of Demand-Control Theory of occupational stress. *Work and Stress*, 15(2), 115-130.
- Calnan, M., Wadsworth, E., May, M., Smith, A., & Wainwright, D. (2004). Job strain, effort-reward imbalance, and stress at work: competing or complementary models? *Scand Journal of Public Health*, 32, 84-93.
- Cedoline, A. J. (1982). *Job burnout in public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Chang, E. C., Rand, K. L., & Strunk, D. P. (2000).

- Optimism and risk for burnout among working college students; stress as a medi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255-263.
- Cheung, G. W., & Lau, R. S. (2008). Testing Mediation and Suppression Effects of Latent Variable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2), 296-325.
- Cummins, R. C. (1988).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receipt of supportive behaviors, and locus of control as moderators of the effects of chronic stress. *American Journal of Common Psychology*, 16, 685-699.
- De Jonge, J., Dollard, M. F., Dormann, C., Blanc, P. M. L. E., & Houtman, I. L. D. (2000). The demand-control model: specific demands, specific control, and well-defined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7(4), 269-287.
- Evangelia, Bakker, A. B., Nachreiner, F., & Schaufeli, W. B. (2001).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of burnou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3), 499-512.
- Eastburg, M. C., Williamson, M., Gorsuch, R., & Ridley, C. (1994).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burnout in nurs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1233-1250.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115-134.
- Gan, Y., Shang, J., & Zhang, Y. (2007). Coping flexibility and locus of control as predictors of burnout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5(8), 1087-1098.
- Gryskiewicz, N., & Buttner, E. H. (1992). Testing the robustness of the progressive phase burnout model for a sample of entrepreneur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747-751.
- Harris, P. L. (1984). Assessing burnout: The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perspective. *Family Community Health*, 6, 32-43.
- Huebner, E. S., & Mills, L. B. (1994). Burnout in school psychology: The contribution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role expectations. *Special Services in the Schools*, 8, 53-67.
- Jacobs S. R., & Dodd, D. K. (2003). Student Burnout as a Function of Personality, Social Support, and Workload.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4(3), 291-303.
- Jayaratne, S., & Chess, W. A. (1983).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in Social Work: In B. A. Farber (Ed), *Stress and burnout* (pp129-141). Elmsford, New York: pergamo Press Inc.
- Karasek, R. A. (1979).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 285-308.
- Karasek, R. A. (1989). Control in the workplace and its health-related aspects, *Job control and worker health*. Wiley, New York, NY: 29-159.
- Karasek, R., & Brisson, C. (1998). The Job Content Questionnaire (JCQ): An Instrument for Internationally Comparative Assessments of Psychosocial Job Characteristic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3(4), 322-355.
- Kobasa, S. C., Maddi, S. R., & Kahn, S. (1982). Hardiness and health: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 Society Psychology*, 42,

- 168-177.
- Kristensen, T. S. (1999). Challenges for research and prevention in relation to work and cardiovascular diseases. *Scand Journal of Work Environ Health*, 25, 550-557.
- Lange, A. H., Taris, T. W., Kompier, M. A. J., Houtman, I. L. D., & Bongers, P. M. (2002). Effect of stable and changing demand-control histories on worker health.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and Health*, 28(2), 94-108.
- Lattanzi, M. E. (1981). Coping with work-related losses.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350-351.
- Lee, R. T., & Ashforth, B. E. (1993). A longitudinal study of burnout among supervisors and managers: comparisons between the Leiter and Maslach (1988) and Golembiewski, et al. (1986). models *Organizational Behavioral Science*, 30, 63-82.
- Leiter, M. P., Clark, D., & Durup, J. (1994). Distinct models of burnout and commitment among men and women in the military.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0, 63-82.
- Marmot, M., Siegrist, J., & Theorell T. (1999). *Health and the psycho-social environment at work*.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edited by Marmot M, Wilkinson R. 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05-127.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 99-113.
- Maslach, C., & Pines, A. (1977). The Burnout syndrome in the day care setting. *Child Care Quarterly*, 6(2), 100-101.
- Maslach, C., & Schaufeli. W. B. (1993). *Historical and Conceptual Development of Burnout*. Professional Burnout: Recent Developments in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Schaufeli et al., Washington, D. C.: Taylor and Francis. 1-18.
- McCarthy, M. P., Pretty, G. M., & Catano, V. (1990).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student burnou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1, 211-216.
- McConnell, E. A. (Ed.). (1982). *Burnout in nursing profession*. St. Louis, MO: Mosby.
- Medin, J., Ekberg, K., Nordlund, A., & Eklund, J. (2008). Organizational change, job strain and increased risk of stroke? A pilot study. *Work: A Journal of Prevention, Assessment and Rehabilitation*, 31(4), 443-449.
- Meier, S. F., & Schmeck, R. R. (1985). The burned-out college student: a descriptive profile.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 63-69.
- Mills, L. B., & Huebner, E. S. (1998). A prospective study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ccupational stressors, and burnout among school psychology practition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 103-120.
- Ostry, A., Kelly, S., Demers, P., Mustard, C., & Hertzman, C. (2003). A Comparison between the effort-reward imbalance and demand control models. *BMC Public Health*, 27, 1-9.
- Paterniti, S., Niedhammer, I., Lang, T., & Consoil, Sl. (2002). Psychosocial factors at work, personality traits and depressive symptom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1, 111-117.
- Peeters, M. A. G., & Rutte, C. G. (2005) Time Management Behavior as a Moderator for the Job Demand-Control Interaction. *Journal of*

-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0(1), 64-75.
- Pines, A., Aronson, E., & Kafry, D. (1981). *Burnout; from tedium to personal growth*. New York: Free Press.
- Pomaki, G., & Anagnostopoulou, T. (2003). A Test and Extension of the Demand /Control/Social Support Model: Prediction of Wellness/Health Outcomes in Greek Teachers. *Psychology and Health*, 18(4), 537-550.
- Ramist, L. (1981). *College student attrition and retention*. New York: Colleagu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Salanova, M., Peir, J. M., & Schaufeli, W. B. (2002). Self-efficacy specificity and burnout among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s: An extension of the job demand-control model.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1, 1-25.
- Schaufeli, W. B., Martez, I. M., Marques, P. A., Salanova, M., & Bakker, A. B.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64-481.
- Schaufeli, W. B., & Taris, T. W. (2005).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burnout: common ground and worlds apart. *Work and Stress*, 19, 256-262.
- Schmitz, N., Neumann, W., & Oppermann, R. (2000). Stress, burnout and locus of control in German n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7, 95-99.
- Schnall, P. L., Landsbergis, P. A., & Baker, D. (1994). Job strain and cardiovascular disease.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15, 381-411.
- Skovholt, T. M.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Stoetzer, U., Ahlberg, G., Bergman, P., Hallsten, L., & Lundberg, I. (2009). Working conditions predic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at work.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8(4), 424-441.
- Totterdell, P., Wood, S., & Wall, T. (2006). An intra-individual test of the demands - control model: A weekly diary study of psychological strain in portfolio worker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9(1), 63-84.
- Yang, H. J. (2004). Factors affecting student burnou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ultiple enrollment programs in Taiwan's technical -vocational colleg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24, 281-301.
- Yang, H. J., & Cheng, K. F. (2005). An investigation the factors affecting MIS student burnout and academic characteristics affecting burnout. *Chi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3, 383-385.
- Van der Doef, M., & Macs, S. (1999). The job demand-control(-support) mode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view of 20 years of empirical research. *Work and Stress*, 13, 87-114.
- Westman, M., & Bakker, A. B. (2008). *Crossover of burnout among health care professionals*. In Halbesleben, J.R.B (Ed.), *Handbook of Stress and burnout in health care*, Nova Sciences, New York, NY.

원 고 접 수 일 : 2010. 2. 12.

수정원고접수일 : 2010. 4. 6.

최종게재결정일 : 2010. 4. 14.

##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demand and academic burnout: the role of control

Minae Kim<sup>1)</sup> Sangmin Lee<sup>2)</sup> Hyojung Shin<sup>2)</sup> Yangmin Park<sup>2)</sup> Jayoung Lee<sup>2)</sup>

<sup>1)</sup>Korea University Middle School

<sup>2)</sup>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aim of present study is to examine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demand and academic burnout but also the function of control on two variables based on the job demand-control model(DCM).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490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and path analysis were as follow: control was confirmed not moderator but suppression variable in between academic demand and academic burnout. The results support that academic control was decreas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demand and academic burnou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mproving academic control may be effective on preventing and intervening academic burnout.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demand-control model, academic burnout, academic demand, control